스위스 최고의 아트 뮤제엄 12 곳.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일부러 발품 팔아 찾는 스위스 미술관들

개인 컬렉션부터 시립미술관까지
포토그래피 박물관부터 디자인 박물관까지
미술관 건축물 자체 감상 위한 건축 투어도
클래식한 현대 작가들은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주목받는 작가들까지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도

스위스하면 자연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스위스가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세계적 거장들의 놀라운 작품과 디자인, 포토그래피를 스위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위스 여행 중, 미술관 하나 정도를 골라서 찾아 보면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작은 마을과 도시에 위치해 있는 수 많은 아트 뮤제엄 중, 열 두개의 세계적인 뮤제엄에는 규모는 작지만 진귀한 작품들이 고이 모셔져 있다. 품위있는 컬렉션과 진기하면서도 흥미진진한 20 세기 및 21 세기 작품들을 만나는 여정을 떠나 보자.

미술관의 전시 뿐만 아니라, 미술관이 자리해 있는 건축물 자체도 볼거리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경우가 많아, 건축학도들의 건축 투어로도 주목받는 곳들이다.

특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대부분의 박물관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거나, 특별 전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 첸트룸 파울 클레(Zentrum Paul Klee) I 베른(Bern)
2005 년에 개관한 첸트룸 파울 클레는 파울 클레(1879-1940)라는 한 사람과 그의 인생, 그의 작품에 헌정된 박물관이다. 세계 최대의 클레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파울 클레는 20 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의 작품 중 40%에 달하는 총 4 천점의 페인팅을 소장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그 건물 자체로도 유명하다. 드넓은 초원 위에 넘실대고 있는 세 개의 물결 모양의 건축물은 이탈리아 건축가인 렌쪼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것이다. 세계적인 수상 경력에 빛나는 그는 초록 섬에서 너울대는 금속과 유리로 형성된 세 개의 언덕을 창조했다. 작품 전시 외에도 첸트룸 파울 클레는 음악과 연극, 무용과 문학 분야에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세 개의 건물 속에는 전시 공간과 음악홀과 이벤트 홀, 어린이 박물관과 미팅 및 세미나 룸이 들어서 있다.

클레의 작품은 정기적으로 순환하며 전시되는데, 항상 그 테마를 바꿔가며 한 번에 120 에서 150 점을 전시한다.

어린이 박물관인 킨더무제움 크레아비바(Kindermuseum Creaviva)는 살아 있는 창조 공간으로 로컬들에게 인기가 많다. 개인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함으로써 거장의 테크닉과 테마가 “실제로 작업하고 체험함으로써 배우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2018 년 11 월 17 일부터 2019 년 3 월 17 일까지는 에밀 놀데(Emil Nolde) 전시가 열린다. 물론 파울 클레의 전시도 상설로 열린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www.zpk.org

2. 쿤스트무제움 베른(Kunstmuseum Bern) I 베른(Bern)
스위스 수도의 시립미술관인 쿤스트무제움 베른의 컬렉션은 스위스에서도 최고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특히 혁신적인 전시관은 현재 예술계의 트렌드를 탐험하는 데 창조적인 장이 되어 주고 있다.

베른 시립미술관은 3 천점이 넘는 페인팅과 조각, 약 4 만 8 천점의 드로잉, 판화, 포토그래피, 비디오 및 필름을 소장하고 있다. 파블로 피카소, 파울 클레, 페르디난드 호들러, 메레 오펜하임의 작품은 베른 시립미술관에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주었다.

컬렉션은 두치오(Duccio),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트레첸토 양식부터 니클라우스 마누엘(Niklaus Manuel), 알베르트 안커(Albert Anker), 프레디난드 호들러*(Ferdinand Hodler), 쿠노 아미에트(Cuno Amiet)로 대표되는 15 세기 이후 스위스 아트, 인상주의, 입체파, 표현주의, 청기사파, 초현실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19 세기와 20 세기 초반의 인터네셔널 페인팅, 그리고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파울 클레, 칸딘스키, 피카소의 작품을 두루 갖추고 있다. 메레 오펜하임, 프란츠 게르취(Franz Gertsch), 마르쿠스 라에츠(Markus Raetz)같은 스위스 작가들과 잭슨 폴락부터 현재 작가들까지 이르는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018 년 9 월 14 일부터 2019 년 1 월 13 일까지는 “호들러(Hodler) // 패러렐리즘(parallelism)”이라는 기획전을 연다.

www.kunstmuseumbern.ch

3. 쿤스트하우스 취리히(Kunsthaus Zürich) I 취리히(Zürich)
취리히 시립미술관, 쿤스트하우스는 취리히 최대의 현대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로 명성이 자자하다. 알베르토 쟈코메띠(Alberto Giacometti)의 작품 외에도, 피카소, 모네, 샤갈과 같은 거장들의 작품은 물론, 현대 스위스 아티스트의 작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이례적인 박물관의 강점은 노르웨이를 제외한 나라 중 최대의 뭉크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베르토 쟈코메띠의 작품을 방대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모네와 피카소, 샤갈, 코코슈카, 벡크만, 코린트의 대표적인 페인팅도 볼 수 있다. 폴락, 로트코, 뉴만으로 대표되는 뉴욕 스쿨 역시 감상할 수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팝아트도 빠질 수 없다.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작업 컬렉션에서 1980 년대의 표현주의 혁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곳의 다른 하이트로는 사이 톰블리(Cy Twombly)의 페인팅과 희귀한 조각을 들 수 있다. 피슐리(Fischli)/바이스(Weiss)의 비디오 설치와 포토그래프,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와 다른 현대 작가들이 21 세기의 내러티브를 이어가고 있다.

2018 년 8 월 31 일부터 11 월 18 일까지는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와 빛의 도시”라는 타이틀의 특별전을 연다.

www.kunsthaus.ch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4. 무제움 퓌르 게슈탈퉁 취리히(Museum für Gestaltung Zürich) I 취리히(Zürich)
디자인 박물관으로, 네 가지 컬렉션을 선보인다. 포스터, 디자인, 그래픽, 응용미술이 그 네 가지 영역이다. 50 만개 이상의 품목을 소장하고 있는데, 디자인과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스위스 최고의 박물관이다.이 곳의 흥미진진한 특별전이 유명해 유럽에서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막스 빌(Max Bill), 헤르버트 마터(Herbert Matter), 르네 뷰리(René Burri), 소피 토이베르 아르프(Sophie Taeuber-Arp), 프라이탁(Freitag) 등의 작업을 만나볼 수 있는데, 디자인과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 스위스는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 박물관은 1875 년부터 체계적인 컬렉션을 통해 디자인의 혁명을 기록해 오고 있는 스위스 유일의 기관이다. 하이라이트로는 산업혁명 시작 이래 미적 기술적 발전의 이정표를 들 수 있다.

취리히 한 복판에 있는 아우슈텔룽슈트라쎄(Ausstellungsstrasse)에 위치한 독특한 건물에 자리한 박물관은 디자인을 모든 측면에서 보여준다.이 곳의 대표적인 인터네셔널 컬렉션 중에서도 보석같은 작품들을 상설 전시로 보여 주고 있으며, 계속 변하는 테마로 특별전도 함께 열고 있다. 천천히 전시를 둘러보며, 획기적인 스위스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완벽한 곳이다.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은 취리히 서부 지역의 힙한 분위기가 넘실대는 한가운데 별관, 토니 아레알(Toni-Areal)을 오픈한다. 특별전시가 이뤄지는 이 곳은 취리히 미술 대학(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ZHdK)의 캠퍼스와 통로를 만들어 실험적인 프로젝트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 논쟁에 대한 관찰을 진행한다.

2018 년 10 월 5 일부터 2019 년 1 월 20 일까지는 토니 아레알에서 '소셜 디자인'이라는 전시를 연다. 2018 년 11 월 16 일부터 2019 년 3 월 3 일까지는 본관에서 세바스치앙 살가두(Sebastião Salgado)의 사진전 '제네시스(Genesis)'를 선보인다.

museum-gestaltung.ch

5. 로젠가르트(Rosengart) I 루체른(Luzern)
로젠가르트 컬렉션은 아트 딜러였던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피카소를 직접 만나면서 자란 안겔라 로젠가르트(Angela Rosengart) 여사의 개인 컬렉션으로, 루체른에서 가장 현대적인 컬렉션이다. 특히 파울 클레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로 유명하다. 특히 피카소가 직접 그려준 로젠가르트 여사의 초상이 박물관을 밝히고 있다.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클레 컬렉션에는 125 점의 페인팅과 수채화, 드로잉이 그의 인생 전반을 보여준다. 피코소의 페인팅도 1938 년 이후의 폭넓은 시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창기 드로잉 시리즈가 위트를 더해준다. 19 세기와 20 세기의 20 여명의 거장들의 중요한 작품들도 소장하고 있는데, 세잔느, 모네, 마티스, 브라크, 레제, 미로를 만나볼 수 있다.

www.rosengart.ch

6. 쿤스트무제움 바젤(Kunstmuseum Basel) I 바젤(Basel)
바젤 시립미술관은 최근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박물관을 확장함으로써 총 3 개의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 미술을 전시하고 있는 고겐바르트(Gognewart) 건물은 메인 빌딩에서 도보로 5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13 년 런던 타임즈는 쿤스트무제움 바젤을 세계 최고 5 개 박물관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확장 건물은 바젤 출신의 건축가, 크리스 앤 간텐바인(Christ & Gantenbein)이 디자인한 것으로, 지하 통로를 통해 메인 건물과 연결이 된다. 1/3 정도는 흥미진진한 건축적 프레임워크 속에서 최고 수준의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메인 건물은 장크트 알반 그라벤(St. Alban-Graben) 구역에 위치해 있는데, 15 세기와 1960 년 사이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별 전시들은 앞으로 새로운 건물의 넉넉한 공간 속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960 년에서 1990 년 사이의 작품들도 새 건물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쿤스트무제움 바젤의 세 건물은 약 총 1 만 제곱미터의 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2018 년 10 월 21 일부터 2019 년 2 월 11 일까지는 '퓌슬리(Füssli), 드라마와 극장'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를 연다.

www.kunstmuseumbasel.ch

7. 무제움 팅겔리(Museum Tinguely) I 바젤(Basel)
무제움 팅겔리는 움직이는 기계적 조형물로 유명한 장 팅겔리(Jean Tinguely)의 작품 세계 최대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인터랙티브한 전시는 그가 끼친 영향과 현대적인 작업, 최신 트렌드를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 팅겔리(1925-1991)는 20 세기의 가장 혁신적이고 중요한 스위스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그에게 헌정되었는데, 사십여년에 걸친 그의 작업을 방대하게 보여 주고 있다. 특별전은 팅겔리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기획되는데, 20 세기와 21 세기 예술가들을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조명하고 있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과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와 같은 영감을 선사하는 작가들부터 아르망(Arman), 니키 드 생 팔(Niki de Saint Phalle), 이브 클라인(Yves Klein)과 같은 현대 작가들, 더 나아가 현대적인 테마와 경향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다. 건물 자체도 인상적인데,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따(Mario Botta)가 디자인한 것이다.

2018 년 10 월 24 일부터 2019 년 1 월까지는 렌 라이(Len Lye) 전시가 열린다.

www.tinguely.ch

8.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I 바젤(Basel)
해를 거듭하며 바젤 근교에 자리한 작은 마을, 리헨(Riehen)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 들고 있다. 힐디(Hildy)와 에른스트 바이엘러(Ernst Beyeler) 부부의 예술 세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바이엘러 부부의 클래시컬 모더니즘 컬렉션을 감상하거나, 센세이셔널한 전시 중 하나를 관람하기 위해 먼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렌쪼 피아노(Renzo Piano)가 디자인한 건축물 자체와 공원도 일부러 찾을만한 가치가 충분해 로컬들에게도 인기다.

시작부터 설레는 체험이다. 이탈리아 건축가 렌쪼 피아노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초록 잔디밭과 나무, 조각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공원이 에워싼 심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이 분위기로 흡족스럽지 않다면 공원 내 빌라 베로워(Villa Berower)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볼 것을 권한다.

바이엘러 재단 건물 안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250 점의 바이엘러 부부 컬렉션은 각각이 모두 마스터피스라 할 정도로 훌륭한데, 널찍하고 환한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1 층의 일부는 바이엘러 재단의 명성을 실감할 수 있는 특별전을 위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마를렌 뒤마(Marlene Dumas),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페르디난드 호들러(Ferdinand Hodler)같은 작가들의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전시들은 언제나 빽빽한 일정의 독서, 담화, 가이드 투어로 꽉 차 있다.

2018 년 9 월 2 일부터 2019 년 1 월 13 일까지는 발튀스(Balthus) 전시가 열린다.

www.fondationbeyeler.ch

9. 맘코(MAMCO)와 뉘데뱅(Nuit des Bains) I 제네바(Genève)
제네바의 현대 미술관인 맘코(MAMCO: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는 모든 면에서 오리지널하다. 1994 년에 개관한 이래 스위스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써 다이나믹한 디스플레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형 창문과 거대한 전시실, 방대한 플로어는 오래전에 없어진 기계의 흔적을 안고 있다. 맘코가 들어서 있는 건물은 과거에 공장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소장한다. 미술관의 곳곳은 전시 공간으로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 사이에 전통적인 구분 없이 일 년에 3 회 모든 공간을 재디자인한다. 1994 년 맘코가 개관한 이래 1960 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작업들을 선보이는 450 회의 전시를 연 바 있다. 맘코의 소장품으로는 크리스토(Christo), 마르틴 키펜베르거(Martin Kippenberger), 제니 홀저(Jenny Holzer), 댄 플래빈(Dan Flavin), 사키스(Sarkis), 프란츠 에르하르트 발터(Franz Erhard Walther),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를 포함한 다수가 있다.

"목욕하는 밤"이라는 뜻의 "뉘 데 뱅(Nuit des Bains)"이 이 곳에서 일 년에 3 회 열리는데,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까닭은 과거에 이 지역에 공동 목욕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행사가 열리는 동안 이 구역은 거대한 갤러리로 변신해 수천명의 미술 애호가와 관람객으로 붐빈다.

2018 년 10 월부터 2019 년 1 월까지는 "패턴, 데코레이션 & 크라임"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린다.

www.mamco.ch

10. 뮈제 드 렐리제(Musée de l'Elysée) I 로잔(Lausanne)
로잔의 사진 박물관으로, 포토그래피에만 집중하는 유럽에서도 유명한 박물관이다.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건물 자체도 이례적으로 포토제닉하다. 레만(Léman) 호수의 풍경이 펼쳐지는 18 세기의 빌라는 아름답기 그지 없다.

포토그래피 유산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전문 센터로, 포토그래피 컬렉션과 함께 수백만 장 이상의 이미지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 중에는 르네 뷰리(René Burri), 엘라 마야르(Ella Maillart), 니콜라 부비에(Nicolas Bouvier),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이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유럽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가장 다양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포토그래피 역사 전반에 대한 자료도 풍부한데,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이라 불리는 은판 사진, 유리판 사진, 알부민 인쇄와 같은 초창기 발명품부터 현대의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까지 그 전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이 흥미진진하고 변화무쌍한 사진이라는 매체의 예술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형태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박물관은 레만호 위쪽에 자리한 맨션에 자리해 있는데, 1780 년에서 1783 년 사이에 건축가 아브라함 프래쓰(Abraham Fraisse)가 지은 것이다.

2018 년 10 월부터 2019 년 1 월까지는 마티아스 브루그만(Matthias Bruggmann) 전시와 류 볼린(Liu Bolin) 전시가 열린다.

www.elysee.ch

11. 포토무제움(Fotomuseum) I 빈터투어(Winterthur)
사진은 현실의 표상이다. 혹은 현실의 대안이다. 빈터투어의 사진 박물관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도 훌륭하고 독특한 사진 예술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는 스위스 사진 재단(Swiss Photo Foundation) 덕분이다.

스위스 사진의 메카라고도 부를만한 이 곳은 옛 공장터를 개조한 공간에 자리해 현대 및 클래식 사진 예술의 상설전과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응용사진, 역사문화, 사회학적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박물관에서 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산업 스냅샷, 건설되고 있는 댐 사진, 의료 사진을 볼 수 있다. 상설전 컬렉션에는 루이스 발츠(Lewis Baltz), 윌리엄 이글스턴(William Eggleston), 낸 골딘(Nan Goldin)을 포함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부여주는 현대 포토그래피 홀이 포함된다.

빈터투어 사진 박물관은 칼 블로스펠트(Karl Blossfeldt), 빌 브란트(Bill Brandt),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을 포함해 19 세기와 20 세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클래식한 작품도 보여준다.

스위스 사진 재단인 포토슈티프퉁 슈바이츠(Fotostiftung Schweiz)는 1971 년에 설립되었는데, 포토그래피 작품의 보존과 발견, 추천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카이브와 컬렉션을 담당하는데, 30 점의 유산과 유명한 사진작가들의 오리지널 프린트 약 3 만점을 소장하고 있다.

www.fotomuseum.ch

12. 마시(MASI) I 루가노(Lugano)
2015 년 9 월부터 루가노 예술 문화, 락(LAC: Lugano Arte e Cultura)은 스위스 남부의 현대적인 창작 활동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역할해 왔다. 티치노 출신의 건축가 이바노 지아놀라(Ivano Gianola)는 1000 명의 관람객들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현대적인 극장과 콘서트 홀을 2500m2 라는 커다란 공간 안에 디자인 했다.

2010 년부터 티치노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술 기관이 한 곳에 소속되게 되었다. 사실 두 기관 모두 스위스의 이탈리아어권의 창작 활동이라는 같은 영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늘날 스위스 이탈리아어권의 현대 미술관 마시(MASI: Museo d'arte della Svizzera italiana)는 두 개의 다른 위치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같은 지역에 기반한 흥미로운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지점은 의미있는 소장전과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팔라쪼 레알리(Palazzo Reali)는 웅장한 르네상스 건축물로 친근한 노란 파사드가 인상적이다. 세 층에 걸쳐 1400 년부터 1850 년에 이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호반에 자리한 새로운 락 암 제(LAC am See) 건물은 그 자체로 인상적인데, 1850 년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극장과 콘서트 홀,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각종 현대 문화 행사가 열린다.

2019 년 9 월 16 일부터 2019 년 1 월 6 일까지는 락(LAC) 지점에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인생의 선"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연다.

www.masilugano.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